

장수 자연휴양림 운영 성황

와룡·방화동, 현재 5만명 이상 방문... 물놀이장·물썰매장 필수코스

장수군은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의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 개시로 8월 현재 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장수군은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성수기 운영을 위해 92명의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안전시설 및 위생 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 문화 수요 증가와 캠핑문화 저변확대로 연간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산림욕장을 이용한 산림욕 및 임도를 활용한 트레킹을 즐기고 있으며, 특히 와룡자연휴양림 내 물놀이장 및 물썰매장을 운영해 자녀가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화동가족휴식촌 내 목재문화체험장 목걸이 만들기 등 18종 체험프로그램을



와룡자연휴양림 내 물썰매장

그램을 수시 운영, 방화동 오토캠핑장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장수군 문민섭 산림복지과장은 "한 분이라도 더 자연휴양림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환경정비 및 체험거리,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황정수 무주군수, 흑미수박 출하현장 방문

안성면 진도리서 3000여 통 오산·김해 롯데마트물류센터로 출하

황정수 무주군수가 지난 8일 안성면 진도리 흑미수박 출하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무주반딧불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오산과 김해지역의 롯데마트물류센터로 출하된 수박량은 3,000여 통으로,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 시범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군수는 "흑미수박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 평균 수익률은 높지만 기상여건과 노지재배에 민감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뿌듯하다"며 "우리 농가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이라던가 방제노력, 그리고 관리를 확대해나기는데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수 무주군수가 지난 8일 안성면 진도리 흑미수박 출하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흑미수박은 과피 색이 검은 색에 가깝고 진한 호피무늬가 새겨진 단타원형 대과종으로 껍질이 얇고 단단하며

육질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맛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 행사

장수군과 전북도 민물고기 시험장이 9일 오전 11시 금강천 및 읍면 주요 하천에서 수중생태계 보호와 유어 환경 조성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장수군 강살리기 네트워크 신창호 대표와 회원,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명이 참여해 장수군 토종어종 생태계 복원을 기원하며 민물고기 시험장에서 공

급한 붓어 4만마와 쏘가리 1만마를 방류했다.

장수군은 매년 자체적으로 토종어종 복원사업을 위해 다슬기, 뱀장어, 미꾸라지, 쏘가리 등 치어를 구입하여 관내 주요하천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산업근로 유상근, 향토공익 신덕재, 효행장 김순아 씨

무주군민의 장 선정

산업근로 유상근·향토공익 신덕재·효행장 김순아 씨

무주군이 제33회 무주군민의 장을 선정했다.

산업근로장은 부남면의 유상근 씨(58), 향토공익장에는 안성면이 고향인 출향인 신덕재씨(56, 경기도 안양시), 효행장은 무주읍 김순아씨(71)에게 돌아갔다.

유상근 씨는 반딧불산태농장(주)을 운영하며 아로니아를 직접 재배할 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역에서 생산되는 아로니아의 60%를 수매해 농가들의 든든한 판로가 되고 있다. 또한 TV(공용홈쇼핑 등) 오프라인을 통해 18억 9,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는 '금강버섯길권역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저온저장고와 헬스시설을 갖춘 생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향토공익장의 주인공인 신덕재 씨는 매년 고향(안성면 진도리)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를 마련하고 천마축제 등 지역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귀감이 되고 있으며 평소에도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사업가로서 칭송을 받고 있다.

김순아 씨는 102세의 시어머님을 극진히 봉양하는 효부로 칭송을 받고 있다. 시집을 온 후 46년 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님을 모시면서도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훈훈함을 주고 있으며 부녀회 활동을 하며 마을 일에도 적극 참여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賞)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발하는데 주력했다"며 "시상식은 오는 29일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 군민화합의 날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군민의 장은 지역의 이름을 높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주어지는 영예로, 문화체육관광과 산업근로장, 향토공익장, 효행장, 환경장 등 5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선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실시

장수군 드림스타트는 장수군보건의로원과 함께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8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대상 아동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가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건강이상을 조기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검진에서는 기본 신체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구강검진 등 34개 항목을 검사했다.

장수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이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과 연계해 예방접종, 치과치료 등 아동별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초보농군-선도농가 7팀 멘토링 현장실습교육 큰 호응

진안군 농업기술센터가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멘토-멘티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은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농작물 재배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귀농인이 원하는 농작물을 선정하고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 내 선도농가에서 매월 20일 이상 5개월간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선도농가에는 매월 40만원과 실습농가에게는 80만원의 교육수당이 지급돼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초보농사꾼과 선도농가로 구성된 7팀이 지난 4월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말까지 현장실습 교육이 운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스키/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